

요미우리 이승엽 '연봉킹'

4년동안 총 30억엔 일본 최고...역대 2위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 순위

순위	선수	연봉액
1	로베르토 페타지니	8억2천만엔
2	이승엽	7억엔
3	사사키 가즈히로	6억4천만엔
4	마쓰이 히데키	6억1천만엔
5	타이론 우즈·알렉스 카브레라	6억엔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4년간 총액 30억엔의 메가톤급 장기 계약을 이끌어낸 이승엽(30·사진)이 내년 일본 최고 연봉 선수로 확정됐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는 28일 인터넷판에서 한신의 한국계 좌타자 가네모토 도모야키(38)가 3년간 총액 20억엔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이승엽이 역대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일본 야구 최고 연봉 2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가네모토가 연봉 5억5천만엔과 옵션 등으로 해마다 6억엔 이상을 받는다면 마쓰나카 노부히코(5억엔·소프트뱅크)를 넘어 일본 선수 중 최고 연봉 선수가 됐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스포츠'는 4년간 30억엔에 계약한 이승엽의 내년 연봉이 7억엔 이상이 돼 가장 많은 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선수를 포함한 역대 최고 연봉 순위는 요미우리에서 뛰었던 로베르토 페타지니가 7억2천만엔으로 1위, 이승엽이 2위, 은퇴한 마무리 투수 사사키 가즈히로가 6억4천만엔으로 3위,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로 이적한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가 6억1천만엔으로 4위, 주니치 드래곤스와 1년간 6억엔에 재계약한 타이론 우즈와 세이부의 알렉스 카브레라가 6억엔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 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옵션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식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아 추정된다.

이승엽은 계약 후 "4년 장기 계약했으니 30억엔에 달한다는 것은 언론의 과장"이라고 말했지만 교도통신을 비롯한 대다수 일본 언론은 4년간 총액 30억엔, 1년 평균 연봉 7억엔 이상을 가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애거시〉



〈지단〉



〈이안 소프〉

스타는 떠나도 기록은 남는다

2006년에도 수많은 스포츠 스타가 은퇴를 선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웹사이트 CNN.com은 연말을 맞아 각 종목에서 찬란한 업적을 이룬 뒤 지랑스럽게 은퇴를 택한 30명을 집중 조명했다. 4대 미국 프로스포츠에 편중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들 중 전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던 이들을 골라 정리했다.

애거시·지단·나브라틸로바 등 은퇴

▲'아듀' 앤드리 애거시=수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던 이란계 미국 테니스 선수 앤드리 애거시가 36살의 나이에 현역 생활을 접었다.

테니스 역사상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우승한 남자 5명 중 1명인 애거시는 통산 8차례 메이저대회 우승, 52번에 달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우승을 비롯해 2003년에는 33살의 나이에 세계 1위에 오르

며 여사상 최고령 남자 세계 1위 기록도 세웠다.

▲'아트 사커 지휘자' 지네딘 지단=마지막 순간 '박치기 사건'으로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긴 프랑스 '아트 사커 지휘자' 지네딘 지단이 2006 독일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했다.

지단은 세 차례나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를 차지하고 1998년 월드컵과 200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에서 조

국 프랑스를 모두 우승으로 이끈 천재 미드필더였다.

▲'F1 황제' 마이클 슈마허=자동차 경주 포돌러(F1)의 황제 마이클 슈마허가 10월 22일 브라질 경주를 끝으로 은퇴했다.

F1 경주를 7차례나 우승한 슈마허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F1 무대를 석권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

▲'인간 어뢰' 이안 소프=2000년 시드니 올림픽 3관왕, 2004 아테네 올림픽 2관왕을 차지한 호주의 '인간 어뢰' 이안 소프가 11월 24살의 젊은 나이에 수영을 떠러치었다. 이유는 "수영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그는 세계대회에서 총 11차례 우승하고 세계신기록을 13번이나 갈아치우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철녀' 나브라틸로바=테니스계 '철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도 지천명의 나이에 두 번째 은퇴를 선택했다.

개인 통산 167차례나 단식 우승컵을 들어 올린 나브라틸로바는 1994년 첫 은퇴를 선언한 뒤 2000년부터 복식선수로 다시 코트에 돌아왔다.

체코 출신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뒤 1975년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한 나브라틸로바는 331주간 세계랭킹 1위를 수호하기도 했다. 그는 4대 메이저대회 타이틀만 58개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챔프 탈환 지인진 '12월 최고의 복서'

노장 투혼을 발휘해 11개월 만에 세계 챔피언 벨트를 되찾은 지인진(33·대원체육관)이 한국권투위원회(KKC)가 선정한 '12월 최고의 복서'로 뽑혔다.

지난 1월부터 매달 최고 복서를 선정하고 있는 KCBC는 '12월의 복서'로 지인진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인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세계복싱평의회(WBC) 페더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로돌포 로페스(23·멕시코)를 심판 전원일치 판정으로 꺾고 지난 1월 고시모토 다카시(35·일본)에게 빼앗긴 챔피언 벨트를 탈환했다.

지인진은 이로써 국내 유일한 프로복싱 세계챔프에 등극하는 동시에 한국 선수로는 똑같은 세계타이틀을 다시 획득한 두 번째 복서로 기록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PGA 6연승 '올해 스포츠 화제'

AP통신 선정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사진)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6연승 등 맹활약이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화제(the sports story of the year)'에 뽑혔다.

AP통신은 28일(한국시간) 우즈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날라온 경기력으로 승화시키면서 PGA 투어 메이저대회 2개를 포함한 6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 평균 422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최근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남자선수'에 뽑히기도 했던 우즈는 3개 메이저대회를 독식한 2000년과 처음으로 마스터스를 제패한 199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의 스포츠 화제'에 선정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국 대학미식축구에서 4쿼터 막판 극적인 뒤집기로 작년 챔피언 남가주대(USC)를 꺾고 정상에 오른 텍사스대의 우승이 평균 380점으로 2위에 올랐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런 타자 배리 본즈가 연루된 도핑 스캔들(342점)과,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미국의 사이클 선수 플로이드 랜디스의 도핑 스캔들(303점)이 3, 4위에 선정됐다.

경주마 바바로가 캔터키 데비에서 우승한 뒤 다리가 부러진 안타까운 사연과 미국프로농구(NFL)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26년만에 슈퍼볼 챔피언에 오른 것, 듀크대 라크로스(Lacrosse)팀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5~7위에 올랐다.

故 김형철선수 유족에 위로금 1억원 지급

도하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중 사망한 고(故) 김형철 선수의 유족에게 문화관광부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위로금 1억원을 지급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28일 "KOC,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뜻을 모아 유족에게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에게는 KOC가 가입한 선수 상해보험금 3천만원과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가입한 상해보험금 4만5천달러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이 도하 현지에서 조의금 1만 달러를 내놓기도 했다.

한화 류현진 연봉인상률 '톱'

올보다 무려 400% 올라...1억원에 도장

2006년 투수 3관왕을 차지하며 신인 돌풍을 일으킨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괴물 좌완투수 류현진(19)이 역대 연봉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며 1억원에 사인했다.

한화 구단은 28일 류현진과 올해 연봉보다 무려 8천만원 인상된 1억원에 재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해 신인 연봉 상한선인 2천만원에 받은 류현진은 무려 400%가 인상된 1억원

에 도장을 찍으면서 프로야구 25년 역사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종전 최고 인상률은 지난해 말 삼성의 마무리 오승환이 재계약하면서 세운 225%. 역시 신인이던 오승환은 지난해 신인왕과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 프리미엄을 앞세워 연봉에서도 2천만원에서 6천500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또 역대 2년차 최고 연봉인 팀 선배 조

성민의 1억110만원(2006년)에는 못치거나 류현진은 순수 신인으로 2년차에 연봉 1억원을 돌파한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인천 동산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계약금 2억7천만원에 한화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은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과 낱차 큰 커브, 팀 선배 구대성에게서 전수 받은 체인지업 등으로 괴력을 발휘하며 다승(18승),평균자책점(2.23),탈삼진(204개) 등 투수 트리플 크라운 위업을 이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